고화력, 안전성, 편리함 모두 갖춘

LG 디오스 전기레인지

대한민국 신기술혁신상 대상
LG전자㈜
LG 디오스 전기레인지
3년 연속 수상

CHECK POINT

- 전류 입구를 4개로 늘린 '쿼드 인버터' 기술로 저효율 용기에도 더 많은 에너지 전달
- '5중 고화력 부스터' 기술로 동급 화력의 국내 3구 인덕션 제품 중 최저 전기료 구현
- 독일 특수유리전문업체 쇼트社가 제작해 긁힘에 강한 미라듀어 상판
- 화구 및 제품 원격 제어가 가능한 LG 씽큐(LG ThinQ) 앱 기능
- 상판 과열 방지 시스템, 정전기 방지 시스템 등 22종 안전장치시스템 탑재

LG 디오스 전기레인지

저효율 용기에서도 조리 속도가 빠른 LG 디오스 전기레인지

LG 디오스 전기레인지는 가열 성능이 떨어지는 인덕션 용기를 사용하더라도 음식을 2배 이상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쿼드 인버터' 기술이 탑재됐다. 이번 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은 인버터 코일에 전류를 통과시키는 입구 역할을 하는 반도체(IGBT: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를 기존 LG 제품 대비 2개에서 4개로 늘려 코일의 부하를 낮춘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에너지를 용기에 전달함으로써 저효율 용기에서도 조리속도가 빨라진다. 인덕션 용기의 효율은 인덕션과 접촉하는 면적뿐만 아니라 자성(磁性)의 세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때문에 제조사별로 용기에 열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를 알 수 있는 용기가열지수를 인덕션 제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기가열지수는 LG전자 내부 기준에 따라 총 10단계로 구분한다. 숫자가 10에 가까울수록 빠르게 가열된다. LG전자는 이 지수가 5~8인 경우 자성이 약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저효율 용기로 정의하고 있다. LG전자는 용기가열지수가 5인 저효율 인덕션 용기를 써서 실험한 결과 신제품과 비슷한 화력을 가진 자사 기존모델(3,300W)보다 대화구 기준으로 조리속도가 2.3배 빨랐다. 이번 실험은 국제 시험인증기관 UL(Underwriter's Laboratories)이 검증했다.

과열을 사전에 방지해 안전한 조리 가능

LG 디오스 전기레인지는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다. 고객들은 스마트폰의 LG 씽큐(LG ThinQ) 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제품의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전원을 끄고 화력을 줄일 수 있다. 이 제품은 ▲코일과 용기 간 거리를 줄여 가열 속도를 향상시킨 2층 코일 구조 ▲안전한 조리를 위한 최고 등급의 내열 코일 ▲과열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코일 설계 ▲과열을 사전 방지하는 코일 과열감지 센서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핵심부품 보호 설계 등 화력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5중 고화력 부스터' 기술로 3,400W 초고화력의 국내 3구 플러그타입 인덕션 제품 중 최저 전기료를 구현했다.

CEO INTERVIEW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그동안 국내에서는 가스레인지 수요가 높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유해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전기레인지에 대한 고객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2022 대한민국 혁신대상 수상은 LG 디오스 전기레인지가 고객들로부터 차별화된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LG전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글로벌 가전 시장을 지속 선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선의의 경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모든 역량과 일하는 방식이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고객에게 진정으로 사랑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